

국내 여성복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 여유분 실태조사

김명옥 · 서미아†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의복을 통해 신체보호뿐만 아니라 심미적·장식적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90년대 중반부터 몸에 맞는 의복의 유행경향과 더불어 편안함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형태 안정성과 맞춤새 향상이라는 기능성과 심미성의 양면성을 추구하는 패션경향을 만족시켜주는 소재로써 신축성 소재의 이용이 보편화 되었다. 이와 같이 보편화된 신축성 소재는 패턴 설계 시 일반 직물 소재 패턴 보다는 줄여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킷의 경우 여름용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감이 부착되어 있고, 신축성 직물의 재킷일 경우는 걸감패턴 설계 시 각 부위의 여유분을 감소시켜 설계함으로써 인해 안감 부착 시에는 걸감에 상응하는 신축성을 가진 안감소재를 사용하거나 신축성이 없는 일반 소재 안감을 사용할 경우는 걸감패턴 설계 시 감소시킨 각 부위의 여유분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류업체에서는 안감소재와 안감패턴의 여유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원가상승과 생산성 감소와 불량증가 등의 이유로 일반 소재 안감과 신축성 소재 안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성복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과 일반 직물과의 여유분의 차이를 알아보고,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패턴 설계방법과 여유분을 알아보고, 의류생산업체의 안감패턴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여성복브랜드의 패턴담당 실무자와 직접면담법과 설문지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신축성 직물 재킷과 일반 직물 재킷의 여유분 차이, 안감패턴의 제작 실태,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패턴 제작 시 신축성 안감과 일반 안감의 여유분의 차이, 또한 안감패턴 제작 시 걸감패턴에서 증감하는 분량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브랜드는 한국패션브랜드연감=Korea fashion brand annual, 2005/2006에 기재된 국내 여성복브랜드 중 2004년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캐릭터 캐주얼과 커리어 캐주얼 존(zone)을 중심으로 20대 여성 대상의 15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신저자 E-mail : miasuh@hanyang.ac.kr

1) 국내 여성복브랜드에서 생산되는 3 버튼의 기본 테일러드 재킷의 여유분에 관한 조사결과, 일반 직물 재킷의 제품치수의 어깨너비 여유분은 0.5cm, 가슴둘레 여유분은 4.6cm, 허리둘레 여유분은 7.1cm, 엉덩이둘레 여유분은 3.8cm, 소매통둘레 여유분은 5.6cm로 나타났다. 일반 직물과 신축성 직물의 각 부위별 여유분의 차이는 어깨너비는 0.4cm, 가슴둘레는 1.8cm, 허리둘레는 0.9cm, 엉덩이둘레는 0.7cm, 진동둘레는 0.7cm, 소매통둘레는 0.7cm 정도 차이 나게 신축성 직물용 패턴을 일반 직물용 제품치수보다 여유분을 적게 주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여성복브랜드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패턴의 설계방법과 여유분 조사결과, 안감패턴설계 시 0.6cm 어깨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어깨에서 패드 분량을 0.6cm짜야 내리고, 전체가슴둘레 여유분은 일반 안감패턴에서 1.91~2.54cm, 신축성 안감패턴에서 0~1.3cm를 길감보다 크게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허리둘레 여유분은 가슴둘레 여유분량과 유사하였으며 밑단둘레는 일반 안감과 신축성 안감 모두에서 0cm로 길감과 똑같이 하여 여유분을 주지 않고 있었다.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일반 안감과 신축성 안감의 안감패턴 설계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감의 진동둘레올림분량은 앞뒤길에서 0.64~0.95cm이었으며 소매에는 1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길 프린세스라인의 진동둘레올림분량은 옆길의 진동둘레올림분량과 동일하지만 뒤길 프린세스라인의 진동둘레올림분량은 옆길의 진동둘레올림분량의 절반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매에서도 큰소매 앞쪽의 진동둘레올림분량은 작은소매 앞의 진동둘레올림분량과 동일하게 하나 뒤소매의 진동둘레올림분량은 소매진동둘레올림분량의 절반을 올려주어 설계하고 있었다. 뒤중심의 활동분량은 뒤목점에서 4~4.5cm 내려와서 허리둘레선 위로 3.6~4cm 되는 지점까지 1.91cm의 활동분량을 주어 설계를 하고 있었다. 전체소매통둘레 여유분은 길감보다 1~1.3cm 정도로 크게 하였는데, 앞뒤길 8개 라인에서 크게 해주는 분량과 동일한 분량으로 소매통둘레 4개의 라인에서 크게 설계하고 있었다.

3) 신축성 직물 재킷 안감패턴설계 실태조사 결과, 국내 여성복브랜드 본사에서 협력업체에 안감패턴을 항상 제공하는 브랜드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80%의 브랜드가 특수디자인일 때만 안감패턴을 협력업체에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재단사가 본사지침과 협력업체의 노하우에 의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소재는 일반 안감과 신축성 안감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브랜드가 46.7%, 신축성 안감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40%, 일반 안감만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13.3%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국내 여성복브랜드의 신축성 직물 재킷의 겉감의 일반 직물과의 여유분 차이,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패턴 제작 시 안감패턴의 설계방법과 여유분 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 인해 재킷의 맞춤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